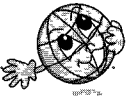


에이즈, 간염 소염 혈액인도, 중국 등에 밀수

에이즈 바이러스(HIV)와 간염에 오염된 혈액이 지난 20년 동안 남아공화국으로부터 영국을 거쳐 인도와 중국 등 국가들에 밀수입되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폭로했다.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지(紙)는 “WHO의 한 보고서에서 수천만 달러 어치의 밀수가 폭로됐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국가의 하나로부터 나온 이 혈액은 건전한 혈액만 통과시키게 돼 있는 엄격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 흔히 ‘동물 혈장’이란 상표명으로 선적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이 혈액은 주로 중국과 인도로 운송됐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수천 명이 오염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경찰은 현재 이 조사를 둘러싸고 다른 유럽 경찰들에게 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다



간박사 김정룡 정년 퇴임 및 책 출간

한국 간 연구의 거목으로 ‘간박사’로 불리는 서울의대 김정룡(65) 교수가 지난 8월 31일 정년퇴임했다.

1959년 인턴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에 발을 들여놓은 지 41년 만 김교수가 퇴임하는 날인 지난 8월 31일에는 250여 명의 환자가 몰려와 그의 마지막 진료를 아쉬워했다.

1970년부터 99년까지 1년 이상 예약 환자 1만5,390명이라는 우리나라 최다 진료기록을 갖고 있는 그는 퇴임을 앞두고 환자와 일반인을 위해 한 권의 책을 내놓았다. 바로 <간 박사가 들려주는 간병 이야기>(일조각 펴냄)가 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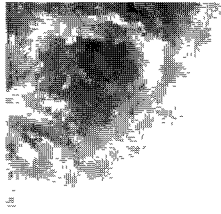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김정룡 박사는 해박한 의료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통해 간의 역할에 서부터 간질환의 징후, 각종 간 질환의 특성 및 치료방법, 술과 간, 약과 간 질환, 간 질환과 다른 장기의 합병증, 건강한 간을 위한 좋은 생활습관, 간 질환의 궁극적 문답풀이, 간병 극복기에 이르기까지 마치 진찰실에서 상담을 하듯 친절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수십 가지 질병 한꺼번에 진단하는 ‘단백질 칩’ 개발

간염, 에이즈, 혈액종양 등 수십 가지 질병에 대해 500여 명분을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단백질 칩이 개발됐다.

서울대 김선영(생명과학부·45) 박희재(기계항공공학부·40) 교수팀은 지난 8월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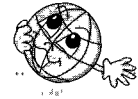
백질 칩을 이용한 다목적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 가지 질병에 대해 96명분을 진단할 수 있는 기존의 진단방법(ELISA)에 비해 대량 고속 자동화가 가능해 원가가 100~1,000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백질 칩은 가로 2.5cm 세로 7.5cm의 슬라이드 위에 약 500개(4,000개까지 가능)의 질병 항원 단백질을 미세배열기로 심은 뒤 1억~100만분의 1g의 혈액(항체)을 각 항원에 정확히 떨어뜨려 반응결과를 자동판독기로 읽어내는 것이다.

연구팀은 12월경 가장 보편적 검진인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를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단백질 칩 시제품을 출시, 내년 4월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또 연구팀은 2002년 20여 가지 성병, 말라리아, 한타바이러스 등을 동시에 진단하는 칩에 이어 점차 암, 자가면역질환, 대사성질환 등 진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혈액 국산화시대 열린다



인공혈액 시대가 조만간 실현될 전망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에이즈, 간염 등 수혈 전파성 감염과 헌혈자 감소로 혈액부족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혈액 관련기술의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95년까지만 해도 인공혈액 관련 특허출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일변도였으나 지난 96년 국내 연구기관이 5건을 출원한 것을 시작으로 97년 4건, 98, 99년 각각 3건 등 내국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총 35건의 인공혈액관련 특허출원 중 15건이 국내 연구기관 기업에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 96년 12월 혈액형에 관계없이 수혈할 수 있는 기술인 '적혈구를 글루타르알데히드로 화학 수정하는 방법'을 출원해 지난해 2월 국내특허를 획득했으며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특허까지 출원했다

우리 나라는 매년 1500만 달러 상당의 혈액을 수입하고 있으며 인공혈액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0조 원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여서 세계 연구기관의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헛개나무 열매서 알콜해독 신물질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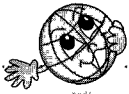


바이오 벤처기업인 미래바이오(대표 김호상)는 헛개나무의 열매에서 알코올을 해독하

는 데 강력한 작용을 하는 신물질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래바이오 생명공학연구소(소장 박영식·강원대 교수)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물질에 대해 미래바이오는 국제발명 특허를 출원했다. 일명 지구자로 불리는 헛개나무는 강원도 양양 지방에 주로 자생하는 나무

김호상 사장은 “이 물질은 간을 해독하는 효소인 GST(Gultathion S Transferase)의 활성을 최대 6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다”며 “때문에 간질환 치료제의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형 간염 퇴치캠페인 ... 대한간학회

대한간학회(회장 정규원·가톨릭대 교수)와 한국그락소스미스클라인비참은 만성 B형 간염 퇴치 캠페인을 전개한다.

10월 20일을 “간의 날”로 제정하고 간염 전문의들이 전국 주요병원에서 간염을 주제로 한 건강강연을 펼치며 무료 B형 간염 진단행사 등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02)709-4482

B형 간염 취업제한 철폐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일반 기업체 취직, 군 입대, 기숙사 입사, 유아원 취학에 이르기까지 자격제한 대상 전염병에 포함되어 왔던 'B형 간염'이 지난 10월 5일부터 완전 제외돼 'B형 간염' 환자·보균자 250여 만 명의 취업길이 열리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자로 판보에 게재된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접객업소 등 다수인이 접촉하는 공중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1·3군 전염병에 포함됐던 'B형 간염'을 2군 전염병으로 옮겨 제한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행자부는 'B형

간염' 환자의 취업을 제한했던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규정'을 한 달 이내에 개정키로 했다. 일반 기업체들도 곧 취업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B형 간염'은 산모한테서 갓난아기로 전염되는 수직감염이나 오염된 주사바늘, 혈액·체액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의 7~8%인 250만 명 가량이 환자나 보균자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별도로 주의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동안 전염병에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